

“주민 일상 공간서 방문객과 함께 체험 즐겨요”



강진군, 23일 병영면 텃밭정원서 ‘한골목 초록씨장’ 운영 체험·SNS 참여 프로그램 운영...주먹밥·음료 등 쿠폰교환

강진군이 관광객과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로컬브랜드 사업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20일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병영면 한골목 텃밭 정원(강진군 병영면 병영남문길 24)에서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드 사업의 하나로 ‘텃밭 정원 반짝시장-병영 한골목 초록씨장’을 운영한다.

‘한골목 초록씨장’은 골목과 정원 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행사다.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며 지역의 생활권 공간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체험한 뒤 쿠폰을 받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사 참여 경험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행사장에서는 텃밭 정원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주요 내용은 한골목 텃밭정원 식물 이음표를 꾸미는 ‘텃밭식물 이음표 꾸미기’, 텃밭 식물을 관찰하고 그려보는 ‘나도 식물화가’, 절기(소만)를 주제로 한 만들기 활동 등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쿠폰 교환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나물 주먹밥, 새콤달콤 음료, 수제 어성초 비누 등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해 참여 재미를 더했다. 또 행사장에는 식물 패브릭 포토존, 꽃송이 캘러리, 반짝 도서관, 어쿠스틱 라이브 등 다양한 콘텐츠도 함께 운영된다. 아울러 강진군은 행사와 함께 로컬셀러도 모집한

다. 모집 대상은 소품, 공예, 농산물, 허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판매·체험 운영이 가능한 참여자로, 선정된 셀러는 행사 당일 부스 운영을 통해 방문객과 직접 소통하며 제품을 소개·판매할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한골목 초록씨장은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드 사업을 통해 일상공간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다”며 “행사 참여는 물론 로컬셀러 모집에도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와 로컬셀러 참여 신청·문의는 안내 연락처(010-3633-9393)로 하면 된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2252@gwangnam.co.kr

완도, ‘희망 학교’ 운영...귀어·귀촌 정착 매뉴얼 전수

내달 5일까지 교육생 모집

완도군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활력 넘치는 여촌 조성을 위해 ‘2026 귀어·귀촌 희망 학교’ 신규 교육생 모집에 나선다. 교육은 귀어·귀촌을 희망하지만 정보 부족과 걱정 등으로 망설이는 예비 귀어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이주·정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론 전담을 넘어 교육생들이 여촌의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학습도 운영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귀어·귀촌 및 어업인 지원 정책, 기초 어업 기술, 해상 안전 교육, 양식장 견학 등이다. 특히 실제 안정적으로 정착한 선배 귀어인을 초청해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육생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5 귀어귀촌 희망학교 현장 학습 수료식 모습. 사진제공=완도군청

교육생 모집은 6월 5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관외 예비 귀어인과 완도군에 거주 중인 전업 5년 이내 귀어인, 재촌 비어업인이다. 교육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 신청은 완도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를 통해 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귀어·귀촌은 단순한 주거지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과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인생의 전환점이다”며 “예비 귀어인들이 완도에서 제2의 인생 항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영암, ‘AI·드론·디지털트윈’ 미래교실 확대

영암군이 교육발전특구 전략산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2026 글로벌 AX 융합 교육과정’을 실습 중심 교육으로 확대하며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국립목포대학교와 연계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형 실습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영암남중학교에서는 AR·VR 기반 가상 정원 콘텐츠 제작과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실제 공간과 가상환경을 연결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과 로봇 체험 과정도 추가됐다. 학생들은 데이터 활용과 협업 프로젝트, 디지털 문제 해결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미래산업 핵심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참여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영암군은 앞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실습 중심 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복용 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체험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학생들이 직접 분석하고 제작하는 실습형 AX교육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미래기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싱그러운 초여름밤 고산유적지서 ‘달빛 산책’

해남군, 프로그램 운영...30일 오후 9시까지 야간 개방

해남군은 오는 30일 고산유적지 고산유적지 야간 개방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고산유적지 달빛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보름달이 뜨는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고산유적지의 고즈넉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에는 고산유적지박물관과 땅굴순례문화관, 고산오우가정원 등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 관람객들이 은은한 달빛 아래에서 고산유적지의 경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람객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된다. 땅굴순례문화관에서는 ‘내 손안의 보름달’을 주제로 한 스트리밍 체험이 진행되며, 고

산유적지박물관 다도체험실에서는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전통 다도 체험이 마련돼 우리 전통문화의 맛과 여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땅굴순례문화관 로비에서는 시화공정 ‘담소’ 공연이 함께 진행돼 공연과 체험, 야간 관람이 어우러진 복합문화행사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고산유적지 달빛 산책 행사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들이 전통문화와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특별한 야간 문화 체험을 즐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남만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광남일보 골목상권 활성화 연중캠페인

광주·전남의 골목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골목경제는 지역공동체의 뿌리이자 **상생경제**입니다.

주민과 상인이 **상생 협력**으로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상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은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골목형 상점가가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광남일보는 골목형상점이 활성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주최 **광남일보** **도리투데이** 주관 **광남일보** 후원 **전라남도 JeollaNamdo**